

“제구만큼은 자신…PS 마운드 서고 싶다”

“캠프서 부족한 체인지업 연마 목표
선배님들 운동루틴 등 배울점 많아”

2020시즌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로 야기 독수리가 된 신인 한승주를 스프링 캠프 출국 전 한화 이글스의 홈구장인 한화생명 이글스 파크에서 만날 수 있었다.

한승주는 이번 스프링캠프 명단에 포함돼 지난달 30일 미국 애리조나로 떠났다. 한화 이글스는 신인 3명(신지후, 남지민, 한승주)을 데려갔다. 한승주는 그만큼 한화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난생 처음 해외로 나가는 한승주는 “해외는 처음이라 기대됩니다. 선배님들과 운동하면서 운동 루틴 등 배우고 싶은 것이 많습니니다”라며 스프링캠프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승주와 야구의 만남은 다섯 살 때였다. 야구를 좋아하는 부모님의 영향이 컸다. “부모님께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제가 선수가 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했던 것은 초등학교 3학년부부터였다. 투수를 처음 시작했던 시기는 초등학교 5학년. “수영초 감독님이신 김상현 감독님께서 제 투구폼이 예쁘다고 하셔서요. 원래 아주만 했는데 그때부터 투수도 같이 했습니다.”



2020시즌 신인 드래프트 2차 2라운드에서 야기 독수리가 된 신인 투수 한승주가 훈련 중 와인드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화 이글스

예쁜 투구폼과 일정한 릴리스 포인트 덕에 제구력이 좋은 투수로 평가받는 한승주는 2019시즌 7승 2패, 평균자책점 0.98, WHIP 0.69로 최고의 해를 보냈다.

“고등학교 1·2학년 때 체격이 작아서 몸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3학년 때 김상현 감독님, 김수형 코치님께서 관리를 해주셔서 좋은 성적을 냈던 것

같습니다.”

한승주가 가장 강조하는 투수의 기본 자세는 ‘자신감’이었다. “마운드 위에서 자신이 없으면 일단 타자에게 지고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자신감을 갖고 마운드에 올라갈 겁니다. 자신감과 제 장점인 제구를 앞세워 타자들을 잡아보고 싶습니다.”

야구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는 황금사자기 1차전인 경남고등학교와의 경기를 뽑았다. “경남고와의 경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겨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제 라이벌이자 친구인 준용이와의 경기였는데 7이닝 1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습니다. 3학년이 될 때까지 경남고 경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열심히 운동했던 보람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스프링캠프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것도 잊지 않았다. “캠프에 가서 부족한 체인지업을 실전에서 통할 수 있도록 연마해 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올라가겠습니다.”

한승주는 인터뷰를 마치고 “지금까지 뒷바라지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팬분들이 실망하지 않고 행복한 야구를 보실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2020시즌 포스트시즌 마운드에서 던져보고 싶습니다”라며 첫 시즌을 임하는 각오를 전했다. 권유성 명예기자(남서울대 스포츠비즈니스 전공) dlackddy97@naver.com

유소년 선수 뇌 질환 예방 ‘논 헤더 풋볼’ 전세계 확산

(헤딩 없는 축구)

유소년 선수의 ‘헤딩 없는 축구, 논 헤더 풋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논 헤더 풋볼에 대해 가장 논의가 활발한 국가는 스코틀랜드다. 지난해 4월, 명문 클럽 셀틱의 레전드였던 빌리 맥널이 차머로 별세하고 10월에는 글래스고 대학 연구팀이 헤딩을 사용하는 축구선수가 일반인과 비교해 뇌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아직 성장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은 어린 선수들이 헤딩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잉글랜드 축구협회(The FA)는 올해 안으로 U-18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에서 헤딩 킥을 제한하는 규칙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벨기에 축구협회는 더 나아가 12세 이하 선수들은 무릎 이상으로 공을 띄우는 걸 금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세계에서 최초로 2014년부터 저연령 선수들의 헤딩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헤딩과 뇌 질환의 연관성은 여러 연구 및 사례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지난 2002년, 59세의 나이로 사망한 잉글랜드 축구선수 제프 애슬의 사인이 만성 외상성 뇌 질환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제프 애슬이 뛰어난 헤딩 능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점이 알려져 더욱 설득력을 얻었다.

현장 지도자들 사이에서 반론도 있지만 국내에서도 대한축구협회(KFA)에서 앞장서 헤딩 금지 조항을 포함해 유소년 선수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현우 명예기자(명지대 정치외교 전공) hwjin@mju.ac.kr

부상 또 부상...필 존스, 실패한 퍼거슨의 유산

(맨유 수비수)

맨유 수비의 미래 평가 받으며 입단
총 39차례 부상 발목...경기력 하락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 알렉스 퍼거슨은 이 선수를 두고 “맨유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현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감독인 사우스게이트는 몇 년 전 스카이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잉글랜드 최고의 수비수”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여름 맨유에서 뛰던 지 10년이 되는 필 존스이다.

한때 잉글랜드 축구를 이끌 미래라는 평가를 들던 그는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뿐만 아니라 영국 팬들 사이에서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맨유에서 10년 이상 뛰던 선수에게 주어지는 기념경기 권리에 대해 그는 “부모님 말고 누가 오겠냐”며 거절했다.

최근 몇 년간 필 존스가 보여준 경기력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특히 이번 시즌은 몇 차례의 호러쇼를 보여주며 완전히 주전 경쟁에 밀린 모양새이다.

지난해 11월 프리미어리그 13라운드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은 리그 첫 선발로 나온 경기였지만 선제골을 헌납하게 되는 결정적인 빌미를 제공했다. 결국 전반전이 끝나자마자 교체되었다.



필 존스

필 존스는 이번 시즌 리그 2경기과 유로파리그 2경기를 포함해 10경기도 채 뛰지 못하고 있다. 한 때 맨유의 수비진을 짊어질 미래라고 평가받았던 그로서는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필 존스는 2002년 블랙번 FC의 유스팀에 입단했으며 이후 성인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맨유의 리더망에 포착되어 2011년 여름 1650만 파운드의 이적료로 맨유로 오게 되었다. 이후 몇 시즌 동안 공에 대한 투지와 몸을 사리지 않는 플레이를 앞세워 수비진의 멀티플레이어로 활약을 펼쳤다. 잉글랜드 국가대표로 뽑히며 2014년 브라질 월드컵과 2018

년 러시아 월드컵에도 출전하였다.

하지만 부상이 발목을 잡았다. 햄스트링, 골반, 발가락, 어깨 등 다양한 부위에 39차례에 달하는 부상을 겪은 그는 총 1129일을 쉬었다. 부상과 함께 경기력의 하락을 보였고, 이번 시즌에도 폼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경기에서 나서지 못하고 있다.

현재 필 존스는 맨유의 마지막 리그 우승을 경험한, 팀에서 가장 오래 뛰고 있는 선수이다. 1992년생인 그는 27세로 아직 젊다. 지난해에는 팀과 2023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했다. 그가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실패했다는 평가를 뒤집을 수 있을까.

김주환 명예기자(국민대 KIBS 전공) joo971017@naver.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매콤한 감칠맛 **착한코다리**

MBC 생방송 오늘저녁에 나온 코다리 대박 맛집

300만원착한전수창업

업종변경/추가메뉴/신규창업
운영노하우/코다리조림 레시피 전수
체계적 교육으로 완벽 창업지도

가맹비/인테리어/로열티 무

유튜브 : 착한코다리
본점: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6 201호
상담문의 010-6361-2342